태고종 총무원장 후보들 선거운동 본격화

상진·성오스님 선거사무소 개소
4월 18일 태고종 전승관서 선거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기호 1번 상진 스님은 1987년 창녕 영명사에 입산, 염불과 시다림에 능했던 순천 선암사 철화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출가했다. 이듬해 사미계를, 2011년 혜초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태고종 동방불교대학 학생과장 · 교학처장, 동두천 광덕사 · 마산 원각사 · 양주 청련사 주지, 한국불교법사대학 의식반 교수, 동방대학원대학 의식반 교수,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 교무부장,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양주경찰서 경승실장을 역임했다. 현재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장, 고려대 불자교우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다.

기호 2번 성오 스님은 1976년 불이성 법륜사에서 출가, 1978년 범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80년 선암사 사교과, 1985년 한국불교포교사대학, 1987년 한국불교태고종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했다. 1997년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8년 중앙대 사회대학원 사진학과를 수료했다. 1999년 대덕, 2001년 종덕, 2015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2017년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사회부장 교육부장과 원로회의 사무처장 경기남부종무원장, 총무원장 권한대행과 행정부원장 등 종단의 여러 소임을 두루 지냈다.

문화사업단 설립 등 종단운영 6대 기조 공약 제시

"종무행정 업그레이드" 종단기구 개편 등 공약으로 내놔

기호 1번 상진 스님(이하 상진 스님)은 3월 28일 경기도 양주 청련사 대적광전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진 스님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지 못한 일부 지도자들의 전횡과 미숙한 종단 경영으로 말미암은 분쟁과 종단사 최초의 총무원장 불신임이라는 불행의 여파는 고스란히 종도들의 몫이 되어 버렸다. 이제 다시는 우리 종도들에게 그런 불행한 기억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단 하나의 바람은 소납이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이유"라며 "행동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종단 안으로는 모든 교구가 평등하고 함께 발전하는 내실을 다지고, 종단 밖으로는 수십년 조계종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원융화합으로 종단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상진 스님은 "동방불교대학의 학생 주임을 시작으로 승가의 대부분을 교육현장에서 살아오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총무원장에 당선되면 반드시 종립대학을 정규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일하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이어 상진 스님은 주요 공약으로 종단 운영 6대 기조를 밝혔다. 이는 △전통불교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사업단 및 불교문화연구소 설치 운영 △총무원 종무행정 관리시스템의 지방이관 △교육사업 확대(불교대학 분교 설치) △승려 노후복지 실현 △종단 재정 운영 자립화 △징계 절차의 3심제 부활 등이다.

상진 스님은 "가칭 '태고종 문화사업단'을 신설해 각 교구에서 추진하는 불교문화의 등록과 그에 걸맞는 국가지원금 확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또한 중앙 총무원 집중 시대를 과감히 탈피해 전국 시도교구 중심의 종무 행정 및 발전을 독자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기호 2번 성오 스님은 3월 27일 경기도 안성 성은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오 스님은 "오랜동안 준비된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육부대중과 소통화합으로 정통종단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출마했다"며 "살아있는 종단으로 만들려면 일대개혁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첫째도 둘째도 종도화합이라며, 화합과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며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성오 스님은 주요 종책 공약을 네 가지로 압축해 발표했다. 이는 △종헌 · 종법 개정과 종단기구 개편을 통한 새 시대 태고종 출범 △종단 교육기관의 시스템 개편 및 교육불사 추진 △종단 사찰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파 △사회연계망 확대 및 봉사체계 수립 등이다.

성오 스님은 특히 "전문직 재가종무원 채용 등 종단기구 개편 및 종헌 · 종법 개정 개편과 종무행정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교육체계의 현대화'와 '불교사이버대학을 통한 인재교류'와 함께 종도의 해외 유학 등을 지원해 인재불사에도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는 오는 4월 18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신임 총무원장의 임기는 6월 27일부터 4년이다.

"괴로움, 명상으로 없앨 수 있다"

진우 스님 · 차드 멩 탄, 불교박람회서 담마토크

진우 스님 "명상 대중화에 진력"
멩 탄 "명상 중요성 깊이 공감"

"괴로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세계적인 명상 전문가 차드 멩 탄이 괴로움의 인과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명상임을 공히 강조했다.

진우 스님과 차드 멩 탄은 3월 30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 국제불교박람회 '명상리더 100인과 함께하는 담마토크'를 진행했다. 이번 담마토크 행사는 불교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23서울릴랙스 위크'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진우 스님은 대담에 앞서 진행된 '현대사회에서의 간화선과 명상의 역할' 주제의 강연에서 명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부처님 말씀이 완벽하고 수행하셨던 명상과 선 역시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널리 보급이 못되고 있는 것은 스님과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 전해주고 있어서다"라고 지적하며 "완벽한 부처님의 명상 수행법을 보급하기 위해 현대인 눈높이의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명상 수행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괴로움의 없애기 위해서임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에서 철저히 인과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한다. 인과를 알고, 연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면서 "괴로움의 인과를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선 명상"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 가운데)이 명상전문가 차드 멩 탄(사진 왼쪽)과 담마토크를 하고 있다. 사진=오윤겸 수습기자

강연 이후 곽정은 메디테이션랩 대표가 진행한 대담에서 진우 스님과 차드 멩 탄은 '이 시대,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법담(法談)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차드 멩 탄은 진우 스님이 강연에서 강조한 괴로움의 인과를 끊어내는 최선의 방법으로 '명상'을 강조한 것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는 "진우 스님께서 인과와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에 감탄했다"면서 "명상은 마음의 본성을 보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명상을 하지 않고서는 고통에서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통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고통을 이해하고 어떻게 완화할 지를 설명한 지혜가 사성제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이 지혜를 증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현재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표준 명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소개하고 명상 대중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명상 지도자 양성이 시급하다. 당장 명상과 선에 대해 잘 전달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만들고 지도자를 양성할 것"이라며 "도심에 체계적 명상프로그램을 전파할 수 있는 명상센터를 건립하려 한다. 센터에는 연구기관도 포함시켜 명상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화선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명상 수행의 최정점이 간화선"이라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화두를 본다는 의미의 간화선은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법"이라며 "명상이 일어나는 감정들을 살피고 떨치는 과정이라면 간화선은 은산철벽을 뚫고 나가는 것이다. 은산철벽을 뚫는다는 것은 결국엔 인과의 벽을 뚫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용주사 주지 후보에 성효 스님 단독출마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신임 주지 후보로 성효 스님<사진>이 단독 출마했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7일 오후 5시까지 주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안양 삼막사 주지 성효 스님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효 스님은 4월 3일 열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주지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다. 산중종회법에 따르면 '주지 후보 단독 입후보 시 산중총회 개회 후 만장일치로 선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효 스님의 경우 종단 주요 종무직 소임을 두루 맡아왔기 때문에 신임 주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주 상보〉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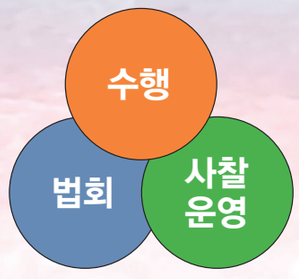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 정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장 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연수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1일차 (9월 6일,수)	2일차 (9월 7일, 목)	3일차 (9월 8일, 금)
09:00~12:00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시연까지'	마음불사 도량불사 스님들의 고민 톡!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한마음과학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실습
- 한마음과학 특강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